

표준체중 유지가 생산성 좌우

□ 취재/김 동 진 기자

채란업을 성공적으로 이 끌기 위해서는 우량 품종선택, 사양관리, 질병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양축가가 아무리 좋은 시설에 좋은 사양관리를 하여도 품종선택의 잘못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양호한 품종을 선택하였다도 관리소홀(사양, 영양 등)로 인해 입추후 도태시까지 나쁜 성적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부분의 농장들이 체중 조절을 무시한 채 닭을 키우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체중을 기록한다 해도 프로

그램에 의해 관리를 하지 않아 산란능력에 큰 지장을 줌으로써 문제성이 되고 있다. 또 각 농장들의 시설형태 및 여건이 다양하고 품종들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체중을 일정간격으로 측정하여 이에 맞게 대처해 나감은 지방간, 탈함방지는 물론 산란성적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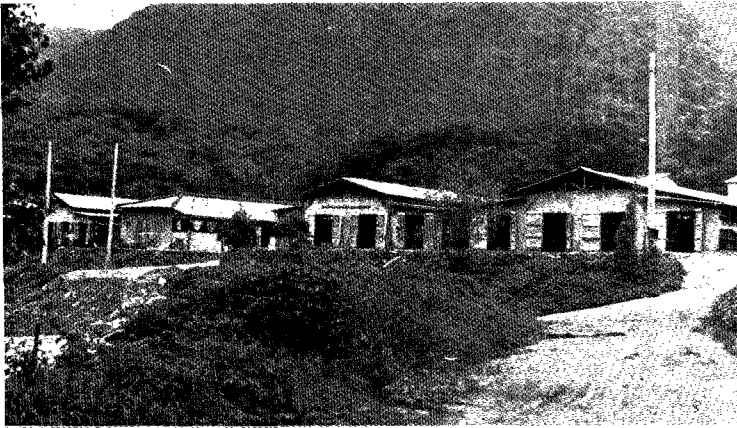
본지는 사양가들이 균일도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체중조절을 이행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학동농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태를 직접

파악하여 소개한다.

총 7만수 규모의 산란계가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학동농장은 학동리(성계사), 선동리(육추사, 중추사), 신장(성계사) 등에 각각 위치해 있다.

이상만(58세)씨는 양계업이 시작되던 초창기에 길동에서 200마리를 부업으로 기르게된게 동기가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들 이만형(31세)씨가 대학을 졸업하던 '85년에 학동리와 선동리 농장을 아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신장에 있는 1만수 규모의 산란계만을 관리하고 있다.

학동리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방은 이만형씨의 유일



학동리에 위치한 성계사 전경

한 연구실이다. 많은 자료와 기록을 통해 시간만 나면 원인을 분석하기에 바쁘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기록판이 있는데 닭의 부화일 및 입추일, 생존율, 산란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무실안에서도 개체별 및 계군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으며 100일령 기준으로 기른 닭들의 생존율이 평균 95%를 보여주고 있었다.

예전엔 중추계약사육으로 닭을 입추시킨적이 있으나 환경 부적응 문제, 일령을 속여과는 행위, 체중균일도 불량 등으로 산란피크뿐 아닌 산란 지속시간이 현저히 떨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어 지금은 닭을 직접 기르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부탁

에 의해 중추 판매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이만형씨는 우리나라 육종이 비교적 잘되는 편이라 지적하고 육종의 발달로 초산일령이 빨라져 평균체중만 도달하면 중추사료에서 산란예비사료인 대추사료를 생략하고 곧바로 산란사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몇년전 병아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부화장의 난립으로 선택폭은 넓어졌으나 문제점도 많음을 시사했다.

이 농장은 육성과정을 중시하는데 크고 작은 병아리는 육성과정 동안의 관리잘못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어 배합사료 급이 못지않게 초생추때는 환기, 온도를 중

시해야 고른 닭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 설치한 직립식육추케이지는 4단5열로 설치되었는데 다른 농장과 비교되는 것은 지붕을 천정처럼 막지 않고 터 놓았으며 아래부분에 6개의 환기팬을 설치, 더워진 윗공기를 밑으로 빨아내도록 설계하였다.

생후 10일령까지는 난로를 설치하여 온도를 조절하지만 그 이후에는 난로를 제거하여 난로 구멍을 통해 환기량을 조절해 간다. 온풍기를 한쪽에 비치하여 적정 온도 유지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다.

학동농장은 체중측정 결과에 따라 사료를 조절하여 완벽한 닭을 길러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4주령부터 체중을 측정하여 2주마다 기록을 하는데 특히 사료교환 1주전에는 반드시 체중측정을 실시한다. 이 농장에서는 보통 8주령에 중추사료를 바꿔주게 되는데 무조건 바꿔주는 것은 평균체중과 균일도가 문제성이 되고 성성숙과 초산일령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일도를 맞추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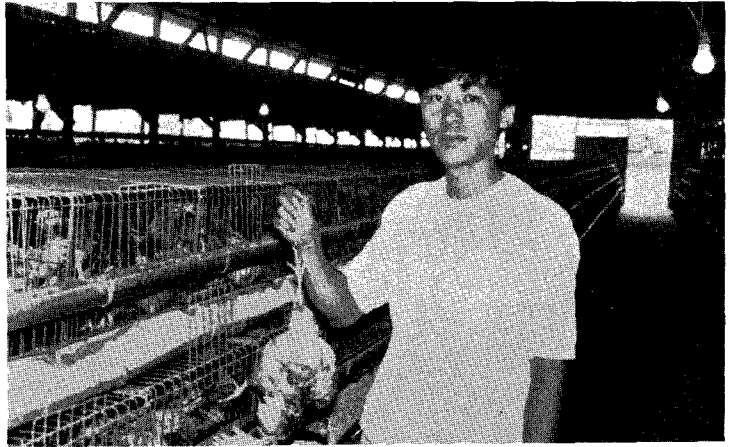
는 사료로 인한 체중조절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체중측정은 1만수 규모중 표본으로 300수를 선택하여 측정하고 있었는데 케이지의 위와 아래부분, 계사의 양쪽끝과 중간부분 등에서 무작위로 선택, 100일령까지 4주령 부터 2주간격으로 동일한 닭을 기록하여 평균체중을 작성하고 있다.

35~35일령이 되면 중추장으로 옮기는데 우선 선별 작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닭들은 따로 분류하여 여름에는 아래쪽 겨울에는 위쪽으로 이동한후 고단백질 사료를 급여, 전체 계군의 평균에 최대한 접근토록 한다. 중추장으로 옮기면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매육을 돈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1주일에 4번 정도 사료와 섞어준다. 이는 고른 식욕을 고취시켜 균일도를 키우기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이 농장에서 실시한 체중 측정결과 지난 12월 병아리를 구입하여 본 계획대로 사양관리를 하였으나 체중 미달 상태가 계속된 닭들의 체중관리 예를 들어보았다.

이 때의 성적은 7주령(표



균일도에 사양관리 초점을 맞추는 이만형씨

준체중 545g)에 300마리를 측정하여 평균 540g으로 미달상태를 보였다. 초생추 사료를 계속급여하여 8주령(표준체중 655g)에 동일한 닭을 300마리 측정 결과 평균 644.75g으로 무려 10g차이를 보였다. 중추사료를 바꾸지를 못하고 같은사료를 계속급여한 결과 10주초(표준체중 770g)에 792g을 기록하여 중추사료로 바꾼 경우가 있었다.

이 닭은 정상적인 경로로 자라진 않았지만 전체계군중 표준체중을 중심으로 $\pm 10\%$ 내에 든 계군이 75%를 기록해 균일도 면에서는 대체로 우수함을 보여줬다.

8주령에 중추사료로 바꾸

지 못한 원인을 이만형씨는 약추에 원인이 있음을 꼽으면서도 중추사로 이동한 후 밀사와 계사내 온도불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지금은 중추사를 새로 설계하여 30~35일령때 중추사로 옮긴 후에도 충분한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균일도의 상태에 따라 사료량을 적절히 조절해가는 방식을 계속 실천해가고 있다.

중추 계약사육시는 70일 기준으로 육성판매하는데 백신접종 기록까지 사육자에게 넘겨준다. 이처럼 방역관리도 균일도 측면에서 볼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표1은 역가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에준해 백신접종(ND)을 한예인데 중추관매(70일령)와 직접 기를 닭(100일령)과의 접종 방법이 다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신접종이 서로 다른 이유는 역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접종하기 때문이다.

4개월 전까지만 해도 ND가 성행한 관계로 1일령에 오일백신을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모চে이행항체가 5~6의 역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10일령에 점안으로 들어가 22일령에 0.2~0.3cc의 사독을 접종하고 있다.

영양조절을 위해 점등관

표1. ND백신 프로그램에

70일령(중추계약)		100일령(직접 기를 닭)	
7일령	B ₁ 음수	1일령	오일백신(ND가 상존해 있을 때)
10일령	점안	40일령	사독
22일령	0.2~0.3cc 사독	70일령	1cc사독
60~65일령	1cc	100일령	오일

리도 중요한데 사양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등방법은 다음과 같다.

점등자극은 1,355g에 도달하면 실시하는데 늦어도 18주령까지는 실시하고 있다.

체중을 일정간격으로 유지해 간다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균일도가 나쁜 계군은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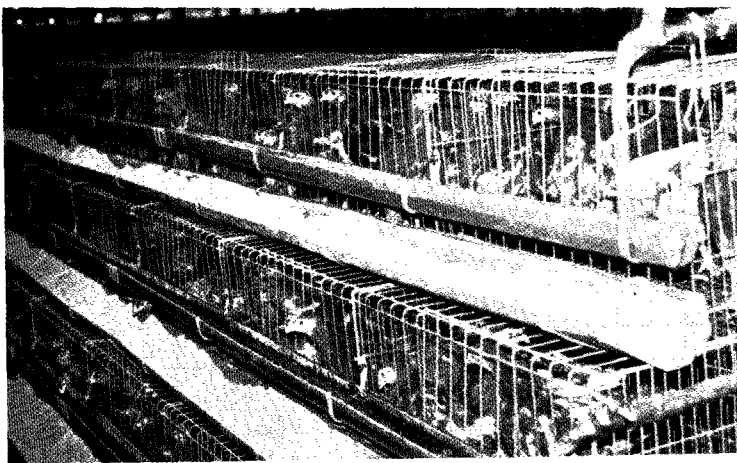
표2. 산란 전까지의 점등관리

1주령	24시간
2 "	22 "
3 "	21 "
4 "	20 "
5 "	19 "
6 "	18 "
7 "	13 "
16주령말	1,355g 도달시 점등자극

것만은 사실이다.

윗 농장처럼 균일도에 중점을 두어 사양관리를 하더라도 차이를 보이는 닭들이 많아 사육자의 정성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다.

앞으로 자동화 계사를 위해 투자의 폭을 넓혀 계군수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사육수수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학동농장은 닭의 균일도에 따르는 생산성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합리적인 경영을 해나갈 계획에 있다. **양계**



농장내의 중추사육 모습